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United Kingdom : U.S. Multinational Company Shrugs Off U.K.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9 pg. 395\)](#)

영국 구글세 관련 과세를 직면한 최초의 미국 다국적 기업이 잠재적 처벌에 대한 우려했습니다. 와이파이 커넥트(WiFiconnected) 제품 제조사 대변인은 8 월 15 일 블룸버그 BNA 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넷기어 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BNA (Bloomberg BNA)가 밝힌 바와 같이 넷기어가 최근 법인세 신고서에 공시한 주석에 따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글세'라는 명목의 과세를 직면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넷기어(Netgear)는 8 월 4 일에 제출 한 반기 실적 보고서에서 "영국의 산정 된 이윤세(Diverted Profit Tax) 적용에 관한 세무조사에 직면 해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세무 기관은 DPT 법령의 적용을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2014 년부터 2016 년도까지 조사과정에 모든 연도의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를 포함하도록 검토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Tax Avoidance HMRC 는 DPT 법령을 통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의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넷기어의 영국 자회사는 2015 년 연례 보고서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 해에 영국 자회사는 세전 이익 120 만 파운드에 224,400 파운드(288,400 달러)의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최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6 년에 넷기어의 13 억 달러 매출의 단 4 %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

13 September 2017

#### KEY CONTACTS

#####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넷기어의 영국자회사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2016 년에 5230 만 달러로 절반에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7 월 5 일 보도 한 바에 따르면, 회사의 최고 경영자 패트릭로 (Patrick Lo)는 영국을 '큰 시장'으로 규정했습니다.

Grant Thornton 의 런던 오피스 세무 파트너 Wendy Nicholls 는 영국의 DPT 법령에 대해 "사람들이 더더욱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BNA (Bloomberg BNA)가 8 월 15 일에 전했습니다.

영국의 이윤세 규정(DPT)은 Google 및 Alphabet Inc. 를 포함한 기타 글로벌 IT 회사들이 해외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택스 플래닝을 하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부적절하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에 대해 25 %의 부과세를 부과합니다.

당시 DPT 를 도입 한 영국의 결정은 OECD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행위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아아 후에도 호주 같은 경우 유사한 기준 및 더 높은 수준의 벌금 관련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 [United Kingdom: U.K. Confirms Multinational Company Global Tax Report Format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9 pg. 395\)](#)

영국정부는 국가별보고서 도입 최초사업연도 마감일까지 6 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국적기업들이 따라야 할 국가별보고서 형식을 확정하였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은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형식으로 자사의 첫 번째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영국 세무 당국은 8 월 15 일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전략을 제한하기 위한 OECD 15-action project 에서 가장 널리 채택된 방침이며, 각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2016 년 3 월 OECD 에서 발간한 보고에 따르면, 스키마(Schema)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전문화된 전산언어이며, XML 은 이런 프로세스를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인코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2016 년 2 월 2 일 영국 세무 당국의 정책 문서에 따르면, 영국에 소재 한 약 300 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조세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해당 그룹들의 매출은 총합 약 7.5 억 유로(8.8 억 달러) 수준의 규모입니다.

2016 년에 영국에 도입된 후,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첫 번째 국가별보고서를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 연도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첫 번째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a 회사가 본사 관할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세무 당국은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다른 관할 구역에 보고서를 자동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국가별 보고서에서 각 관할 구역에 해당하는 매출, 종업원 수, 세금, 유형자산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United States: U.S. Companies Reinvesting More Offshore: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9 pg. 383\)](#)**

매사추세츠 재무공시 조사기관이 집계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위 기업의 해외에 영구적으로 재투자되는 소득 금액이 2016 년도에 다시 한번 증가하여 총 자산의 약 1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분석 보고서(Audit Analytics)에 의하면 Russell 1000 지수에 속한 기업이 해외에 무한정 재투자 한 총 금액이 2015 년 2 조 4300 억 달러에서 2016 년 2 조 6200 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예로 Microsoft 는 회사 수익의 1,240 억 달러를 재투자하였는데 총 자산의 64 % 가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사는 가장 높은 비중인 76.2%를 해외에 재투자 하였으며 금액으로 환산 하면 2,570 억 달러 입니다. 이 금액은 해당 회사의 총 수익의 9.95 %입니다. 분석대상 1,000 개의 회사 중 526 개사는 2016 년에 해외 무한정 재투자를 결정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2015 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최근 과거 분석기간 9 년동안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Russell 1000 지수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상위 1000 여개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주식시장 지수입니다.

미국 납세자는 각종 다양한 종류의 국외원천소득의 본국 신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무 회계 기준위원회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설정 한 회계 기준에 의하면 자금이 무기한으로 해외에 재투자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이연 법인세를 인식하도록 요구 합니다. 다수 미국 기업들이 이연법인세를 조세 회피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회계 규정을 작성하는 FASB 는 회사가 외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소득 및 소득세 관련 정보를 분석 할 수 있는 공시자료 요구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이사회는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세무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 하며 공시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OECD: Don't Use New VAT Standards for Income Tax: Business Groups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9 pg. 408\)](#)**

OECD 에 회부된 공식의견서에 의하면,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정부가 광범위한 범위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국제비즈니스협회(USCIB)의 경제산업자문위원회는 소비세 징수와 법인세 징수 관련 표준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8월 11일에 발표된 경제 산업자문회(BIAC)의 OECD 모델조세조약에 대한 논평에는 “부가가치세 또는 재화·용역 소비세의 목적은 고정사업장 설립의 목적 및 해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IAC은 부가가치세 및 고정사업장 설립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에 BEPS 문서화 용어 관련 상호 참조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BEPS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제조세표준을 통해 세금 회피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모델조세조약 관련 여러 가지 개정사항을 포함하며, 소비자가 위치한 곳에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소비세 징수를 제정하는 새로운 규칙도 이에 해당합니다.

“고정사업장”이란 관할 구역에 물리적 설비가 설립된 외국법인의 과세실체와 관련이 있는 법인 소득세의 한 개념입니다.

BIAC 외에도 미국 기업 납세자들을 위한 무역 단체인 USCIB는 새로운 부가가치세 표준이 소득세 관할권을 주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Microsoft의 국제조세 부회장 및 USCIB 조세위원회 회장인 William Sample은 “부가가치세의 맥락에서, 기업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를 등록하는 것이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USCIB는 부가가치세와 재화·용역 소비세 표준이 고정사업장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지지하였으며, 관련 논평은 7월 11일까지 수집되었습니다.

[Back to top](#)

---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